



일 간호대학 박사학위논문의 분석을 통한 간호학 연구의 경향*

최명애¹⁾ · 홍경자¹⁾ · 한경자¹⁾ · 박영숙¹⁾ · 박성애¹⁾ · 하양숙¹⁾ · 김금순¹⁾ · 윤순녕¹⁾
 송미순¹⁾ · 이명선¹⁾ · 이인숙¹⁾ · 박현애¹⁾ · 최스미¹⁾ · 정재원²⁾ · 박연환³⁾ · 장희경⁴⁾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자들은 전문직으로서 간호학 발전을 위하여, 연구를 통하여 간호 실무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간호학적 지식체를 개발하고 축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김의숙 등, 2004; 신현숙, 성경미, 정석희, 김대란, 2008; 최경숙 등, 2000; Nyquist & Woodford, 2000; Thomas, 2001).

간호연구는 간호에서 흥미 있는 개념,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과정(Nyquist & Woodford, 2000)으로 간호지식을 개발, 정련, 확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박연환, 이영희, 김옥수, 조명옥, 2008). 간호연구는 나이팅게일 시대,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서 시작되어 1920년대 미국에서 정규간호대학이 생기면서 초창기를 맞이하였고(Sheehe, 1994), 지금까지 시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간호학만의 고유한 지식체를 개발하고 축적하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전개해 학문적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김의숙 등, 2004; 신현숙 등, 2008) 및 국외에서(Robinson & Dracup, 2008; Spear, 2007) 전문직으로서의 학문적 입지를 굳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대한간호’의 출간, 1955년 간호대학 과정의 설립, 1961년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면서 본격적인

간호연구 활동이 시작되었다(강윤희, 이숙자, 1980). 1970년에는 ‘간호학회지’가 창간되어 다양한 간호학 연구논문이 게재되어 왔으며, 1978년 이화여자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되면서 전문직으로서 학문적 발달의 주춧돌이 마련되었다(안경주 등, 2004). 1990년대에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 도입되었고(최영희, 1995), 2000년 이후에는 실무에서 유용한 간호지식을 향상시키고 과학으로서 간호학의 정립을 위한 전략으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개발을 위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오의금, 오현주, 이윤정, 2004).

간호학 연구 중에서도 박사학위논문은 간호학적 지식체 개발의 출발로(신현숙 등, 2008), 박사과정생들이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간호학적 지식체를 개발하고 실무에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연구활동이다(Robinson & Dracup, 2008). 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Erdmann et al., 2005; Hooker & Mayo, 2002; Robinson & Dracup, 2008; Spear, 2007) 국내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에 첫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고, 2006년까지 총 932편이 발표되어(신현숙 등, 2008) 간호학의 지식체 확장 및 간호연구 인력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발표된 논문이 전체 박사학위 논문의 반수 이상을 차지할

주요어 : 박사학위논문, 논문분석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간접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간호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 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간호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 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간호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교신지자 E-mail: hanipyh@snu.ac.kr)
- 4)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투고일: 2009년 3월 31일 심사완료일: 2009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 2009년 5월 20일

정도로 단기간에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므로(신현숙 등, 2008) 현재까지 수행된 박사학위 논문의 학문적 탐구 경향을 포괄적으로 평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개 간호대학 박사과정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간호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간호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해당 대학의 학풍과 흐름을 확인하고 성찰하여 이후 간호학 학문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국내 간호연구 논문 분석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처음에는 연구방법 측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에는 특정 개념이나 주제를 기준으로 분석되었고(김의숙 등, 2004), 2000년대 이후에는 기존 방법에 더하여 분과 별로 간호중재나 통계기법, 질환 관련 중재 등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한 논문들이 다양하게 배출되고 있다. 간호학 석·박사 학위 논문 대상의 분석에서는 학위 논문 제목의 주요어 분석(고옥자 등, 1994), 학위논문 중 실험연구논문 150편의 연구방법 분석(김명자, 이명선, 이미형, 이화인, 1994), 국내 학위논문의 연구주제 및 방법 분석(김희걸, 이영숙, 1995) 등 대부분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자료수집방법 등 양적연구 방법 위주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학문 간의 지식 공유와 국외 학술지 등재 등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여 MeSH에 등재된 주요어 분석 및 내용적 특성 분석(안경주 등, 2004),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탐구 경향 분석(김의숙 등, 2004; 신현숙 등, 2008) 등 간호학문의 지식체 생성 및 개발에 관한 조망을 탐색하기 위하여 철학적 관점, 이론, 방법 등을 포괄하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방법에 집중되었고(김명자 등, 1994; 김희걸, 이영숙, 1995), 일정 기간 동안 배출된 연구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김의숙 등, 2004; 신현숙 등, 2008) 간호학의 지식체 탐구 경향의 변화를 유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 간호대학의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 전수를 대상으로 방법론적 특성, 주요어와 연구분야, 연구목적 등 내용의 변화, 연구 설계의 근거가 된 이론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하여 일 대학 학풍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찰을 통해 일 대학을 비롯한 전체 간호 대학원 교육의 방향과 연구 경향을 위한 자료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간호대학의 대학원에 박사과정이 개설된 1984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된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 전수의 내용적 특성, 연구방법론적 특성과 사용된 이론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간호학 박사 학위논문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간호학 지식체 탐구 경향을 확인하여 대학원 교육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박사 학위논문의 내용적 특성(연구 분야, 지식체 구축 유형, 연구 목적, 간호중재 유형)을 분석한다.
- 박사 학위논문의 연구방법론적 특성(연구 설계, 연구대상자, 자료수집 방법, 표본추출, 자료수집 장소)을 분석한다.
- 박사 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이론의 특성(이론적 기틀, 이론의 종류와 수, 이론 사용의 목적)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 박사학위논문을 분석하여 기술한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연구 대상

일 간호대학에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된 1984년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1989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수행된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전수에 해당하는 총 120편이었다. 학위논문에서 나타난 간호학 탐구 경향을 확인하고, 박사학위논문 수가 급증한 2000년대 이후(신현숙 등, 2008)의 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연대 분류방법인 5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반부(1989-1995년) 33편, 중반부(1996-2000년) 27편, 후반부(2001-2006년) 60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과정

● 분석 기준

연구에 사용한 학위논문 분석기준은 연구자들이 총 3회의 회의를 거쳐 학위논문 분석 연구와 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분석기준을 검토하여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결정하였다. 확정된 분석기준은 학위논문의 내용적 특성(안경주 등, 2004), 연구방법론적 특성(안경주 등, 2004)과 사용된 이론의 특성(이소우, 2004)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째, 학위논문의 내용적 특성으로는 연구분야, 지식체 구축 유형, 연구의 목적 등이 분석 기준에 포함되었다. 논문의 주요어, Carper(1978)의 지식체 유형에 따른 논문주제, Kim(1993)의 간호실무 지식의 3가지 측면에 대한 연구주제를 분석하여 연구 분야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어는 간호학의 주요 관심 영역인 메타패러다임(Fawcett, 1999)의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비교하였고, 연구결과의 특성은 간호지식체 개발 및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유형별

로 분석하였다. 둘째, 학위논문의 연구방법론적 특성에서는 선행연구(안경주 등, 2004)에서 분석기준으로 포함하였던 연구 유형, 양적연구의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자료수집방법, 표본추출 방법, 자료수집 장소 등을 간호연구 방법 책(Burns & Grove, 2008)에 소개된 각 기준별 항목에 따라 분석하였다. 셋째, 학위논문에 사용된 이론의 특성에서는 이론적 기틀여부, 사용된 이론의 종류와 수, 이론 사용의 목적 등을 분석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2006년 7월 간호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5명을 자료수집 조사원으로 모집하여 연구의 목적,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을 교육하였다. 2006년 8월 5명의 조사원이 3부의 동일한 박사학위 논문을 정독하여 분석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리한 결과를 연구원들과 같이 검토하여 평가자간 분석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평가자간의 일치도가 80% 이상 되도록 조사원들을 훈련한 후 2006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명의 자료수집 조사원의 전공영역,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0~30부씩 박사학위 논문을 나누어 정독한 후 분석기준에 따라 자료를 정리, 수집하였다. 연구원이 수집한 자료는 연구자인 각 지도교수와 예비분석과 토론을 거쳐, 최종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1명의 박사과정생 연구원이 SPSSWIN 13.0 program을 이용하여, 합의된 분석기준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통계 분석 과정 중 누락된 자료나 확인이 필

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박사과정생 연구원이 해당 박사학위 논문 원본을 대조하여 연구 책임자와 합의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박사학위논문의 내용적 특성

● 주요 연구 분야

본 연구대상 학위논문들은 간호학의 주요 관심영역인 메타 패러다임에 따라 인간, 건강, 환경, 간호의 영역 내에서 각 논문의 주요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간호’영역에 속하는 연구가 4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인간’과 ‘건강’ 영역으로 각각 36.2%, 11.0%이었다. 환경 영역에 속하는 학위논문은 7.9%로 나타났다<Table 1>. 1996년 이후로 ‘간호’영역에 속하는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건강’과 ‘환경’ 영역에 속하는 연구는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 지식체 구축 유형

박사학위 논문을 Kim(1993)이 제시한 4가지 측면인 대상자 영역, 실무 영역, 환경 영역, 그리고 대상자-간호사 영역의 지식체 유형에 따라 논문 주제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측면과 실무 측면의 간호지식에 대한 학위논문이 각각 56편(46.7%), 50편(41.7%)이었다<Table 1>. 시대적 변화를 보면 2000년까지는 대상자 측면의 지식체 개발에 대한 학위 논문이 많았고, 2001년 이후 실무 측면의 지식체 개발에 대한 학위논문이 증가하였다.

Carper(1978)가 간호학 구성 지식체를 경험적 지식, 개인적 지식, 윤리적 지식, 미적 지식으로 구분한 기준에 따라 분석

<Table 1> The area of research

(N=120)

Area	Year	1989-1995		1996-2000		2001-2006		Total	
		n	%	n	%	n	%	n	%
The area of key concepts	Nursing	*11	27.5	14	51.9	32	53.3	*57	44.9
	Human Being	*17	42.5	7	25.9	22	36.7	*46	36.2
	Health	*8	20.0	3	11.1	3	5.0	*14	11.0
	Environment	*4	10.0	3	11.1	3	5.0	*10	7.9
	Total	*40	100.0	27	100.0	60	100.0	*127	100.0
Type of nursing knowledge	Client domain	19	57.6	13	48.1	24	40.0	56	46.7
	Practice domain	9	27.3	9	33.3	32	53.3	50	41.7
	Environment domain	3	9.1	3	11.1	2	3.3	8	6.7
	Client-Nurse domain	2	6.1	2	7.4	2	3.3	6	5.0
	Total	33	100.0	27	100.0	60	100.0	120	100.0
Dimensions of nursing knowledge	Empirical dimension	22	66.7	24	88.9	48	80.0	94	78.3
	Aesthetic dimension	9	27.3	3	11.1	8	13.3	20	16.7
	Ethical dimension	2	6.1	0	0.0	4	6.7	6	5.0
	Total	33	100.0	27	100.0	60	100.0	120	100.0

*double count

한 결과 경험적 지식체 구축을 위한 학위 논문이 78.3%이었다. 인간관계와 인간봉사, 간호실무에 있어서 간호사 자신의 표출 방법을 반영한 미적 지식체 구축에 대한 논문은 16.7%였으며, 윤리적 지식 구축 학위 논문도 6편(5.0%)이었으며 개인적 지식에 속하는 논문은 없었다<Table 1>. 박사학위논문에 반영된 지식체 구축 유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의 목적

학위논문 연구 목적의 시대적 변화 추이를 Burns와 Grove(2008)의 기준틀에 의해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 가운데 간호 중재 개발 및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40편(40.8%),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39편(39.8%), 그 외 변수를 확인하고 기술하는 연구가 19편으로 19.4%에 이르렀다. 질적연구는 11편(57.9%)이 현상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외 Q 분류법을 통해 이론을 생성하는 연구도 1편 있었다<Table 2>.

박사학위 논문에서 개발되어 사용된 간호중재는 정보제공 및 교육의 형태인 인지적 측면의 중재(59.8%)가 우세하였으며 심리사회적 중재를 사용한 연구가 1989-1995년 3편이었던 것이 2001-2006년에 27편으로 증가하였다<Table 3>.

박사학위논문의 연구방법론적 특성

● 연구 설계

연구설계의 유형을 Burns와 Grove(2008)의 분류틀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 98편(81.7%), 질적연구 19편(15.8%)이었고, Q 방법이나 트라이앵글레이션 연구방법을 이용한 논문은 3편(2.5%)이었다<Table 4>. 시대별 변화를 보면 양적연구는 1989-1995년 69.7%, 1996-2000년 92.6%, 2001- 2006년 83.3%로 지속적으로 과반수이상 수행되고 있었다. 질적연구는 1989-1995년 21.2%였다가, 1996-2000년 7.4%로 감소하였고, 2001년 이후에는 16.7%로 다시 증가하였다. 양적연구 중에서는 유사실험을 포함한 실험연구설계가 43.9%로 많았고, 모형 개발 연구가 34.7%를 차지하였다. 질적연구에서는 근거이론적 접근(36.8%)과 현상학적 논문 수(26.3%)가 많았다.

양적연구에서 실험연구는 1989-1995년에 8편(34.8%), 1996-2000년에 11편(44.0%), 2001-2006년에 24편(48.0%)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양적연구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Table 4>. 비실험연구(Non-experimental design)는 자료수집 대상자 형태에 따라 표본조사가 53편으로 비실험연구의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전수조사로 이루어진 논문은 없었다. 연구목

<Table 2> Purpose of the Research

(N=120)

Classification	Year	1989-1995		1996-2000		2001-2006		Total	
		n	%	n	%	n	%	n	%
Quantitative research									
Identifying & describing variables		5	21.7	6	24.0	8	16.0	19	19.4
Examining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11	47.8	9	36.0	19	38.0	39	39.8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7	30.4	10	40.0	23	46.0	40	40.8
Total		23	100.0	25	100.0	50	100.0	98	100.0
Qualitative research									
Exploring a phenomenon		6	85.7	1	50.0	4	40.0	11	57.9
Developing theories to describe & manage clinical situations			14.3	1	50.0	5	50.0	7	36.8
Examining the health practices of certain cultures		0	0.0	0	0.0	1	10.0	1	5.3
Describing the historical evolution of leaders in the profession & of health-related issues, events, & situations		0	0.0		0.0	0	0.0	0	0.0
Total		7	100.0	2	100.0	10	100.0	19	100.0
Others(Q-method, Triangulation)									
Identifying & describing variables		2	66.7	0	0.0	0	0.0	2	66.7
Developing theories to describe & manage clinical situations		1	33.3	0	0.0	0	0.0	1	33.3
Total		3	100.0	0	0.0	0	0.0	3	100.0

<Table 3> Classification of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Year	1989-1995		1996-2000		2001-2006		Total	
		n	%	n	%	n	%	n	%
Cognitive intervention		*23	88.5	*36	75.0	*11	25.6	*70	59.8
Psychosocial intervention		*3	11.5	*12	25.0	*27	62.8	*42	35.9
Physical intervention		0	0.0	0	0.0	*5	11.6	*5	4.3
Total		*26	11.5	*48	25.0	*43	100.0	*117	100.0

*double count

<Table 4> Design of research

Classification	Year	1989-1995		1996-2000		2001-2006		Total	
		n	%	n	%	n	%	n	%
Type of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8	34.8	11	44.0	24	48.0	43	43.9
	Developing models	7	30.4	10	40.0	17	34.0	34	34.7
	Survey	7	30.4	4	16.0	5	10.0	16	16.3
	Developing instruments	1	4.3	0	0.0	4	8.0	5	5.1
	Total	23	100.0	25	100.0	50	100.0	98	100.0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1	14.3	1	50.0	5	50.0	7	36.8
	Phenomenology	2	28.6	0	0.0	3	30.0	5	26.3
	Case study	2	28.6	1	50.0	0	0.0	3	15.8
	Ethnography	1	14.3	0	0.0	0	0.0	1	5.3
	Descriptive study	0	0.0	0	0.0	1	10.0	1	5.3
	Discourse analysis	1	14.3	0	0.0	0	0.0	1	5.3
	Narrative analysis	0	0.0	0	0.0	1	10.0	1	5.3
Total	7	100.0	2	100.0	10	100.0	19	100.0	
Others(Q-method, Triangulation)	3	100.0	0	0.0	0	0.0	3	100.0	
Type of quantitative research design	Experimental design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3	12.5	9	36.0	13	26.0	25	25.5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4	16.7	1	4.0	5	10.0	10	10.2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0	0.0	0	0.0	3	6.0	3	3.1
	Interrupted time series design	1	4.2	1	4.0	0	0.0	2	2.0
	Simulate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0	0.0	0	0.0	1	2.0	1	1.0
	Randomize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0	0.0	0	0.0	1	2.0	1	1.0
	Completely randomized factorial design	0	0.0	0	0.0	1	2.0	1	1.0
	Subtotal	8	33.3	11	44.0	24	48.0	43	43.9
	Non-experimental design								
	Sample Size								
	Sample survey	14	93.3	13	92.9	26	100.0	53	54.1
	Mass survey	1	6.7	1	7.1	0	0.0	2	2.0
	Total	15	100.0	14	100.0	26	100.0	55	56.1
	Purpose								
	Correlational study	9	60.0	12	85.7	20	76.9	41	41.9
	Descriptive study	4	26.7	0	0.0	2	7.7	6	6.1
	Comparative study	1	6.7	2	14.3	1	3.8	4	4.1
	Evaluation study	1	6.7	0	0.0	3	11.5	4	4.1
	Total	15	100.0	14	100.0	26	100.0	55	56.1
	Time-dimension								
	Cross-sectional study	13	86.7	13	92.9	26	100.0	52	53.1
	Longitudinal study	2	13.3	1	7.1	0	0.0	3	3.1
Total	15	100.0	14	100.0	26	100.0	55	56.1	
Total	15	100.0	14	100.0	26	100.0	55	56.1	
Total	23	100.0	25	100.0	50	100.0	98	100.0	

적에 따라 상관성 조사연구는 증가 추세로 양적연구 전체의 41.9%(41편)였으며, 서술적 조사연구는 6.1%(6편), 비교 조사연구와 평가 조사연구가 각각 4.1%(4편)를 차지하였다<Table 4>. 연구 시점에 따라서는 비실험연구의 94.5%에 해당하는 52편의 연구논문이 횡단적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종적연구는 3편이었다<Table 4>.

●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5>와 같이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가 아닌 건강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가 30.5%,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10.7%였다.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9.9%였는데 주로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대상이었다. 2001년 이후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순수실험연구도 2편 배출되었다. 연구 대상자를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83.2%의 연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중년과 노인 대상의 연구가 증가하였다.

● 자료 수집 방법

양적연구에서 자료수집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은 자가보고 방법의 하나인 질문지(51.1%)였으며 생리적 측정 도구의 사용도 크게 늘어 16.1%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측정법

<Table 5> Character of data collection process

(n=120)

Characteristics			1989-1995		1996-2000		2001-2006		Total	
			n	%	n	%	n	%	n	%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ype	Patient	*16	43.2	*15	46.9	*26	41.9	*57	43.5
		Normal person	11	29.7	*10	31.3	19	30.6	*40	30.5
		Nurse	*4	10.8	*2	6.3	*8	12.9	*14	10.7
		Family	3	8.1	*5	15.6	5	8.1	*13	9.9
		Nursing record	*2	5.4	0	0.0	1	1.6	*3	2.3
		Animal	0	0.0	0	0.0	2	3.2	2	1.5
		Medical personnel	1	2.7	0	0.0	*1	1.6	*2	1.5
		Total	*37	100.0	*32	100.0	*62	100.0	*131	100.0
	Developmental stage	Pregnant	1	2.4	*2	3.8	*1	1.2	*4	2.2
		Postpartum	0	0.0	0	0.0	1	1.2	1	0.6
		Newborn	1	2.4	0	0.0	0	0.0	1	0.6
		Toddler	0	0.0	0	0.0	1	1.2	1	0.6
		Child	0	0.0	*3	5.7	*1	1.2	*4	2.2
		Adolescent	0	0.0	2	3.8	*5	6.0	*7	3.9
		Early adult	*10	23.8	*18	34.0	*18	21.4	*46	25.7
		Middle age	*18	42.9	*16	30.2	*29	34.5	*63	35.2
		Elderly	*8	19.0	*10	18.9	*22	26.2	*40	22.3
		Not available	4	9.5	2	3.8	6	7.1	12	6.7
		Total	*42	100.0	*53	100.0	*84	100.0	*179	100.0
Data collection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Questionnaire	*24	72.7	*19	61.3	*27	37.0	*70	51.1
		Psychosocial measure	0	0.0	*5	16.1	*20	27.4	*25	18.2
		Physiological measure	*4	12.1	*5	16.1	*13	17.8	*22	16.1
		Interview	*4	12.1	*2	6.5	*5	6.8	*11	8.0
		Observational method	*1	3.0	0	0.0	*7	9.6	*8	5.8
		Delphi technique	0	0.0	0	0.0	*1	1.4	*1	0.7
		Total	*33	100.0	*31	100.0	*73	100.0	*137	100.0
	Qualitative research	Indepth interview	*7	70.0	2	100.0	*10	76.9	*19	76.0
		Participant observation	*2	20.0	0	0.0	*3	23.1	*5	20.0
		Diary	*1	10.0	0	0.0	0	0.0	*1	4.0
		Total	*10	100.0	2	100.0	*13	100.0	*25	100.0
	Others(Q-method, Triangulation)	Q sort	2	50.0	0	0.0	0	0.0	2	50.0
		Questionnaire	*1	25.0	0	0.0	0	0.0	*1	25.0
		Indepth interview	*1	25.0	0	0.0	0	0.0	*1	25.0
		Total	*4	100.0	0	0.0	0	0.0	*4	100.0
Type of sampling methods in non-qualitative research	Probability(Random) sampling methods	Simple random sampling	0	0.0	1	100.0	2	66.7	3	60.0
		Stratified random sampling	0	0.0	0	0.0	0	0.0	0	0.0
		Cluster sampling	1	100.0	0	0.0	1	33.3	2	40.0
		Systematic sampling	0	0.0	0	0.0	0	0.0	0	0.0
		Subtotal	1	100.0	1	100.0	3	100.0	5	100.0
	Nonprobability(Nonrandom) sampling methods	Convenience(Accidental) sampling	24	96.0	24	100.0	47	100.0	95	99.0
		Quota sampling	1	4.0	0	0.0	0	0.0	1	1.0
		Subtotal	25	100.0	24	100.0	47	100.0	96	100.0
		Total	26	100.0	25	100.0	50	100.0	101	100.0
		Place for data collection	Hospital - ward	*11	25.0	*10	31.3	*13	20.0	*34
Hospital - out patient clinic	*10		22.7	*8	25.0	*12	18.5	*30	21.3	
Home	*11		25.0	*5	15.6	*4	6.2	*20	14.2	
Community facility	*5		11.4	2	6.3	11	16.9	*18	12.8	
Public health center	1		2.3	1	3.1	*7	10.8	*9	6.4	
School	2		4.5	*3	9.4	1	1.5	*6	4.3	
Others	4		9.1	3	9.4	17	26.2	24	17.0	
Total	*44		100.0	*32	100.0	*65	100.0	*141	100.0	

*double count

은 1996년 이후 처음 등장하여 25편(18.2%)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Table 5>. 모든 질적연구는 기본적으로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참여관찰법을 함께 사용한 연구가 5편(20%), 참여자의 일지에서 자료를 수집한 연구가 1편(4.0%) 있었다<Table 5>.

● 표본추출

표본추출 방법은 Burns와 Grove(2008)의 분류 기준에 따라 <Table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질적연구 외 연구(non-qualitative research)에서 비확률표출법인 편의표출이 95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할당표출법은 Q 분류를 위해 자료를 수집한 1편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확률표출법은 5편(5.0%)의 연구논문에서 이루어졌는데 2편의 동물 대상 실험을 포함하여 3편(3.0%)에서 단순무작위추출법이 적용되었다.

● 자료 수집 장소

자료수집은 병원의 병실(24.1%)과 외래(21.3%)에서 다수 이루어졌다<Table 5>. 2001년 이후에는 경로당과 복지관 등의 지역사회 시설(12.8%)과 보건소(6.4%)에서 이루어진 연구논문의 수도 증가하였다.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이론

● 이론적 기틀

전체 박사학위논문 중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은 48편(40.0%)이었으며, 이론적 기틀을 제시하지 않은 논문은 72편(60.0%)이었다<Table 6>.

● 사용된 이론의 종류와 수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이론가의 이론들을, 간호이론가에 의해서 개발된 이론을 활용한 논문, 타 학문분야에서 개발된

이론을 활용한 논문, 그리고 간호이론과 타 학문분야에서 개발된 이론을 동시에 활용한 논문 등으로 분류하여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박사학위논문에서는 간호학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들보다는 타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들을 활용한 논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 분야의 이론에서 나온 명제를 검증하거나 간호와의 관련성을 검증한 논문이 전체 박사학위논문의 4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Orem, Roy, Bernard, Pender 등 간호이론가의 이론을 검증하거나 활용한 논문은 전체 학위논문의 29.1%로 나타났으나, 1989-1995년의 40.0%보다 1996-2000년에 23.1%, 2001-2006년에 20.0%로 감소하고 있다.

● 이론 사용의 목적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론을 사용한 목적을 분석한 결과,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가 40편(83.3%)이었으며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는 6편(12.5%)이었다.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는 전체 2편(4.2%)이었으나 이론 분석을 위한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Table 6>. 학위논문에서 이론을 사용한 목적은 시대적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 결과 일 대학의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은 1989-1995년에 33편, 1996-2000년에 27편이었던 것에 비해 2001-2006년에 60편으로 2001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학위논문 수가 증가한 것은 간호대학 교수 요원의 증가(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007), 대학원 박사과정생 선발인원의 증가(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007), 임상에서의 연구 활동의 활성화(신현숙 등, 2008), 근거중심 간호실무의 요구 증가(오의금 등, 2004) 등

<Table 6> Theoried in research

(N=120)

Theoretical characteristics		Year	1989-1995		1996-2000		2001-2006		Total	
			n	%	n	%	n	%	n	%
Theoretical framework	Yes	20	60.6	13	48.1	15	25.0	48	40.0	
	No	13	39.4	14	51.9	45	75.0	72	60.0	
	Total	33	100.0	27	100.0	60	100.0	120	100.0	
Type of theories	Nursing theory	8	40.0	3	23.1	3	20.0	14	29.1	
	Theory developed from other disciplines	4	20.0	6	46.2	11	73.3	21	43.8	
	Synthesis nursing theory & theory from other disciplines	8	40.0	4	30.8	1	6.7	13	27.1	
	Total	20	100.0	13	100.0	15	100.0	48	100.0	
Use of theories	Application	17	85.0	11	84.6	12	100.0	40	83.3	
	Test	2	10.0	1	7.7	3	25.0	6	12.5	
	Development	1	5.0	1	7.7	0	0.0	2	4.2	
	Analysis	0	0.0	0	0.0	0	0.0	0	0.0	
	Total	20	100.0	13	100.0	15	100.0	48	100.0	

간호연구 인력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국내의 학문,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 (Hooker & Mayo, 2002; Robinson & Dracup, 2008; Spear, 2007), 브라질(Erdmann et al., 2005)에서 수행된 간호학 학위 논문 및 논문 분석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현재까지 수행된 박사학위논문의 연구 분야를 주요어를 토대로 메타패러다임의 영역을 분석한 결과 ‘간호’, ‘건강’에 대한 연구가 많은 반면 ‘환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학위논문의 주요어를 분석하였던 선행연구들(고옥자 등, 1994; 안경주 등, 2004)과 유사하였다. 또한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요용어를 분석한 결과 ‘건강’ 영역에 속하는 주요 용어가 가장 많았고 ‘환경’에 속하는 주요 용어가 가장 적었다는 선행 연구(박연환 등, 2008; 서문자 등, 2001)와,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분석을 통해 ‘건강’ 관련 영역이 전체 주요어의 거의 절반(49.1%)을 차지하였다는 김증임 등(2007)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1983년부터 2001년까지 브라질에서 수행된 간호학 학위 논문의 주제 중 간호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는 Erdmann 등(2005)의 연구와, 미국에서 1970년부터 2000년 동안 수행된 박사논문 중 임상적 간호 행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한 Hooker와 Mayo(2002)의 연구와도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국내외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간호학 연구들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뿐 아니라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도 대부분 ‘간호’, ‘건강’ 분야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현상, 간호에서 문제가 되는 불확실한 현상이나 건강-간호와 관련된 경험적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를 통해, 그 현상을 심사숙고하고 간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뚜렷한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은 간호의 대상자인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Kim, 2000)이므로, 향후 간호 실무 향상에 기여하는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지식체 유형 중에서는 대상자 측면과 실무 측면의 간호지식체 구축을 위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2001년 이후 실무 측면의 간호지식체 구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2000년 이후 수행된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 305편을 분석한 신현숙 등(2008)의 연구와 최근 1년 동안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였던 Chang(2005)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브라질에서 448편의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적 실무와 기술 개발을 위한 실무 측면의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의 필요성을 제언한 Erdmann 등(2005)의 연구와도 유사하였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임상 실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적 측면의 지식체 구축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것은 박사학위 논

문이 전문직으로서 간호학의 학문적 발달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반영하는 것이다(김의숙 등, 2004; 안경주 등, 2004; Robinson & Dracup, 2008; Sharts-Hopko, 2005; Spear, 2007). 또한 실무에 적용 가능한 이론 개발(이소우, 2004; Kim, 2004; Nyquist & Woodford, 2000), 근거중심 간호실무를 위한 간호지식체 개발(Thomas, 2001) 등 최근의 간호학 연구 경향과도 일치하였다. Cowling(2005)은 박사학위 논문은 실제적 간호지식체(substantive disciplinary) 개발에의 기여, 건강/질병의 연속선상에서 대상자인 인간 경험의 복잡성과 통합성을 고려하는 연구 설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식 개발, 지식 개발 과정을 통한 학생의 전문성 향상을 고취할 수 있는 연구 경험 창출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향후에도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연구자가 간호 실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체 개발에 중요한 연구 문제를 선정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Burns & Grove, 2008; Spear, 2007)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각 대학에 적합한 학풍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학문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지식체 개발을 위해서는 경험적 지식뿐 아니라 미적, 윤리적, 개인적 지식 등 4가지 지식체의 균형적인 개발이 필수적이므로(안경주 등, 2004; Stein, Corte, Colling, & Whall, 1998) 보다 폭 넓은 분야의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와 대상자의 윤리적 선택, 학술활동에서의 윤리적 연구 수행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학적 윤리의 고찰과 고유한 지식체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위논문의 연구 목적을 분석한 결과 간호중재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가 가장 많았다.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된 간호중재는 정보 제공 및 교육 중재가 많았고 최근에는 심리 사회적 중재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간호중재 관련 주요어가 54.8% (박연환 등, 2008), 52.0%(서문자 등, 2001)로 많았던 것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2000년~2004년 미국에서 발표된 207편의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한 실험 연구는 7.7%에 불과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Spear, 2007). 국내 일개 대학의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에서 간호중재 개발 및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것은 독자적인 간호학의 지식체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향후에는 지금까지 수행된 다양한 간호중재의 장기적 효과 분석, 간호중재 효과의 메타 분석 등을 통하여 비용 효과적인 간호중재의 정련화를 통해 대학의 특성을 살린 학풍 정립이 필요하다.

연구 유형에서는 양적연구가 많았지만 질적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양적연구의 연구 설계에서는 조사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유사실험연구와 모형 개발 연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적 추이를 분

석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국내에서 2000년 이후 수행된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을 분석하여 상황관련 연구 43.3%, 요인관련 연구 30.5%, 요인분리 연구 6.9%, 질적연구 18.0%로 보고하였던 신현숙 등(2008)의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00년 이후 수행된 미국의 박사학위논문 분석 결과 질적연구가 전체의 45.9%를 차지하였고 실험연구는 7.7%에 불과하였던 Spear(2007)의 연구와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일개 간호대학의 학위논문은 국내외 간호학 학위논문과 유사하게 질적연구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가 많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는 전문가적 실무와 기술 개발을 위한 간호중재 연구의 중요성을 증시하는 대학의 학풍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형 개발 연구가 많았던 것은 박사학위논문을 통하여 간호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밝혀 간호 지식체 개발 및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Burns & Grove, 2008; Robinson & Dracup, 2008; Spear, 2007)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는 지금까지 수행된 모형 구축 연구를 기반으로 모형을 검증하는 중재연구가 이루어져 근거중심 간호실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가보고로 임상에서 자료를 수집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나, 2001년 이후에는 생리적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결과의 객관화를 도모하는 연구들과 지역사회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간호학 학위논문(고옥자 등, 1994; 김의숙 등, 2004; 김희걸, 이영숙, 1995; 안경주 등, 2004)과 학회지 게재 논문(김중임 등, 2007; 박연환 등, 2008; 서문자 등, 2001; 최경숙 등, 2000)의 연구 방법을 분석하였던 여러 선행연구와 미국에서 수행된 간호학 학위논문 분석 연구(Spear, 2007)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Thomas(2001)는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지도 교수와 학생은 완벽한 연구를 기대하기보다 연구자로서의 출발점임을 감안하여 실제적 표준에 근거한 충분성(good enough)을 평가할 것을 제안하면서 박사학위논문의 제한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학위논문 이외의 대다수의 간호학 연구에서도 엄격한 실험설계의 부족, 편의표출에 의한 결과 해석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Omery & Williams, 1999). 그러나 박사학위논문이 전문직으로서 간호학 지식체 탐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 현상은 복잡적이고 다양하여 한 가지 연구 방법으로 관심 있는 현상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연구 방법의 조화로운 적용이 필요하다(박연환 등, 2008; 최경숙 등, 2000). 구체적으로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설계 적용, 전수조사나 확률표출방법의 도입, mixed methodology 활용, 종적설계로 간호중재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등 다양한

연구설계를 이용한 학위 논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사학위논문은 과학적 지식체 구축의 근간이 되는 간호이론과 경험적 연구간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 학위논문에서 이론을 사용한 목적이나 활용된 이론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은 40.0%에 불과하였는데, 이론을 개발, 적용, 검증하는 논문에서는 이론적 기틀을 제시하면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비실험연구(non-experimental study)인 조사연구에서는 이론적 기틀을 제시하지 않았다. 간호학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들보다 타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았던 것은, 미국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207편을 분석한 결과 45.4%가 타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들을 활용한 것이며 간호학 이론에 근거한 연구는 27.1%에 불과하였다는 Spear (2007)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타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을 활용한 배경은,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은 다학문적 통합(multidisciplinary integration)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Nyquist & Woodford, 2000), 특히 간호학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Sharts-Hopko, 2005)는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이론 중에는 추상성이 높은 거대이론들이 많아 실제로 연구 환경에서 이론을 개발, 적용, 검증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많다. 그러나 간호이론은 타 분야의 이론과는 달리 간호실무가 잘 개념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이소우, 2004), 향후 경험적 연구 과정을 통한 간호 이론의 개발, 적용 및 정련을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근거중심 간호실무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중범위 이론(Kim, 2004)을 적용한 연구수행이 필요하며,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한 간호이론 창출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에서 2006년 2월까지 발표된 간호대학 박사학위논문 전수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대학의 학풍을 반영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자 수행하였으나 일개 간호대학의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내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전체의 연구 동향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 박사학위논문 전수를 분석하여 현재까지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에 나타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간호학 지식체 탐구 경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사학위논문의 주요어를 중심으로 간호의 메타페러다임 영역을 분석한 결과 간호, 인간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4가지 측면의 간호지식 중에는 대상자 측면, 실무 측면의 간호지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지식체 구축 유형에서는 경험적 지식을 탐구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다. 주요 연구 목적을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는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40.8%로 가장 많았으며 질적 연구의 57.9%는 현상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에서 적용한 간호중재 유형은 인지적 측면의 중재와 심리사회적 중재가 많았다.

둘째, 방법론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구유형은 양적 연구 중 유사실험연구를 포함한 실험연구(43.9%)와 모형 개발 연구(34.7%)가 많았다. 질적연구도 증가하여 15.8%에 이르렀다. 연구설계 유형은 양적연구의 실험설계에서는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가 증가하였고 비실험설계에서는 상관성 연구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유형은 환자(43.5%), 건강인(30.5%)이 많았고,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성인(83.2%)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자료수집 방법은 질문지(51.1%)가 가장 많았으며, 표본추출은 비확률표출 방법(94.1%)이 대부분이었다. 자료수집 장소는 병실(24.1%), 외래(21.3%)가 많았다.

셋째, 이론 사용의 목적을 보았을 때에는 이론 적용 연구가 83.3%로 가장 많았고, 연구에 사용된 이론의 종류로는 타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들을 활용한 논문(43.8%)이 가장 많았다.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은 40.0%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경험적 지식 외에 윤리적 지식, 미적 지식 등 간호 지식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학문적 변화를 수용하여 연구 분야와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복잡한 간호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체 개발을 위하여 양적연구뿐 아니라 질적연구, mixed methodology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고 생리적 측정도구의 활용, 무작위 대조군 설계, 종적 설계 등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간호학 고유의 지식체를 개발하고 근거중심 실무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호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과 적용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이 간호학의 실무, 교육 및 연구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박사학위논문의 학술지 발표 여부와 장기 추적 연구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조사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윤희, 이숙자 (1980). 전문지를 통해 본 간호연구의 실제. *대한간호*, 19(3), 54-64.

고옥자, 김상혜, 김희걸, 이금재, 이영숙 (1994). 학위 논문의 주요어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4(1), 58-69.

김명자, 이명선, 이미형, 이화인 (1994). 우리나라 석박사학위 논문 분석: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4(1), 96-114.

김의숙, 김광숙, 김대란, 김은정, 성경미, 신현숙, 신혜경, 이영자, 정석희 (2004). 박사학위논문에 나타난 간호학 탐구경향. *대한간호학회지*, 34(2), 315-323.

김증임, 박소미, 박혜숙, 정재원, 안숙희 (2007).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최근 3년간의 논문분석(2004-2006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3(1), 51-59.

김희걸, 이영숙 (1995). 우리나라 간호학 및 간호학 관련 학위 논문 분석. *대한간호*, 34(5), 68-79.

박연환, 이영휘, 김옥수, 조명옥 (2008). 최근 3년간 성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내용과 경향 분석(2004-2006년). *성인간호학회지*, 20(1), 176-186.

서문자, 김소선, 송미순, 이명선, 오의금, 신경림, 김옥수, 이숙자, 이영자, 오효숙, 정계심, 김철규 (2001). 성인간호학회지 논문(1989-2000)의 내용과 경향 분석. *성인간호학회지*, 13(4), 571-580.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007).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1907-2007*. 서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신현숙, 성경미, 정석희, 김대란 (2008).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의 최근 탐구 경향: 2000년 이후 논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8(1), 74-82.

안경주, 함은미, 박광희, 강지연, 박성희, 이희주, 류세양, 이명선, 김금순, 최명애, 이소우, 이은옥 (2004). 서울대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분석을 통한 간호학 연구의 경향. *간호학지평*, 1(1), 85-102.

오의금, 오현주, 이윤정 (2004). 임상 간호사들의 연구 관련 활동 실태 및 연구결과 활용의 장애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4(5), 838-848.

이소우 (2004). 간호이론 분석, 평가 및 개발에 관한 소고. *간호학의 지평*, 1(1), 1-21.

최경숙, 송미순, 황애란, 김경희, 정명실, 신성례, 김남초 (2000). 대한간호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국내 간호연구 동향. *대한간호학회지*, 30(5), 1207-1218.

최영희 (1995). *질적간호연구*. 서울: 수문사.

Burns, N., & Grove, S. (2008). *The practice of nursing research, appraisal, synthesis, and generation of evidence* (6th ed.), Missouri: Saunders Elsevier.

Carper, B. (1978). Fundamental patterns of knowing in nursing. *ANS*, 1(1), 13-23

Cowling, W. R. (2005). Direction for doctoral dissertaion

- research. *Nurs Sci Q*, 18(1), 14-5.
- Erdmann, A. L., Silva, I. A., Rodrigues, R. A. P., Fernandes, J. D., Vianna, L. A. C., Lopes, M. J. M., Santos, R. S., & de Araujo, T. L. (2005). Nursing doctoral theses produced on graduate programs between 1983-2001. *Rev Esc Enferm USP*, 39, 497-505.
- Fawcett, J. (1999). The state of nursing science: hallmarks of the 20th and 21st centuries. *Nurs Sci Q*, 12, 311-315.
- Hooker, R. S., & Mayo, H. G. (2002). Doctoral dissertations on nurse practitioners: 1970-2000.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Nurse Practitioner*, 14(6), 276-84.
- Kim, H. S. (2004). Strategies of middle-range theory development in nursing. *Perspectives in Nursing Research*, 1(1), 22-35.
- Nyquist, J. D., & Woodford, B. J. (2000). *Re-envisioning the PhD: What are our concerns?* Retrieved August 6, 2008, from the Center for Instructional Development and Research, University of Washington Web Site: <http://www.grad.washington.edu/envision/PDF/ConcernsBrief.pdf>
- Omery, A., & Williams, R. P. (1999). An appraisal of research utilization across the United States. *J Nurs Adm*, 29(12), 50-56.
- Robinson, S., & Dracup, K. (2008). Innovative options for the doctoral dissertation in nursing. *Nurs Outlook*, 56, 174-178.
- Sharts-Hopko, N. C. (2005). Direction for doctoral research. *Nurs Sci Q*, 18(1), 17-19.
- Sheehe, J. B. (1994). Academic freedom: history, constraints, and recommendations for nursing education. *Nurse Educ*, 19(6), 15-19.
- Spear, H. J. (2007). Nursing theory and knowledge development—a descriptive review of doctoral dissertations, 2000-2004. *ANS*, 30(1), E1-E14.
- Stein, K. F., Corte, C., Colling, K. B., & Whall, A. (1998). A theoretical analysis of Carper's ways of knowing using a model of social cognition.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12(1), 43-60.
- Thomas, S. P. (2001). The good enough dissertation: A model proposal. *Nurs Outlook*, 49, 211-212.

Trends of Doctoral Dissertations of One College of Nursing in Korea

Choe, Myoung-Ae¹⁾ · Hong, Kyung Ja¹⁾ · Han, Kyung Ja¹⁾ · Park, Young Sook¹⁾
Park, Sung Ae¹⁾ · Hah, Yang-Sook¹⁾ · Kim, Keum Soon¹⁾ · Yun, Soon-Nyung¹⁾
Song, Misoon¹⁾ · Yi, Myungsun¹⁾ · Lee, In Sook¹⁾ · Park, Hyeoun Ae¹⁾ · Choi-Kwon, Smi¹⁾
Chung, Chae Weon²⁾ · Park, Yeon-Hwan³⁾ · Chang, Hee Kyung⁴⁾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3)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4)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by analyzing the doctoral dissertations in one college of nursing in Korea. **Method:** The areas of research,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ories used in the research were explored in all doctoral dissertations (n=120) published from 1989 to 2006. **Result:** Mainly “Nursing” has been studied (44.9%) among four meta-paradigms of nursing science. The “client” domain (46.7%) and the “practice” domain (41.7%) were most frequently studied in type of nursing knowledge. The main purpose of the thesis was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 and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actice (40.8%) in quantitative research. Almost all (94.7%) of the qualitative dissertation studies were to explore phenomena in the nursing field. Almost half of the dissertations (43.9%) were an experimental design, 34.7% were a model construction, and 15.8% were a qualitative design. The majority of dissertations (83.3%) were to apply the specific theory and almost half (43.8%) studied borrowed theories from other fields.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rigorous and various research designs such a longitudinal design, 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d this will lead to expanding the body of nursing knowledge.

Key words : Analysis, Academic dissertations, Nursing theor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Yeon-Hwan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Yeongeon-dong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846 Fax: 82-2-765-4103 E-mail: hanipyh@snu.ac.kr